

##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

박재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정계숙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서보순\*\*\*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은라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

### 《요약》

---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들의 행복한 삶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모와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지원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으로 구성된 부모의 행복에 대한 인식 설문지를 B시의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의뢰하여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살펴보고, 이를 행복요소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였으며,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어머니들의 행복감은 다소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관계영역에서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성장영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행복요소별 행복감은 중요도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어머니의 학력, 직업 유무, 자녀의 장애유형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연령,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 자녀의 장애등급은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어머니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함에 있어 성장영역의 행복요소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장애아동의 어머니, 어머니의 행복, 행복요소

---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30-B00168)

\*\* 제1저자(jaekook@pusan.ac.kr)

\*\*\* 교신저자(sbsboss@hanmail.net)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떤 때 행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인류의 주요한 논의거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행복이란 단어는 그 의미를 누구나 알지만, 분명히 정의를 내리기는 힘든 것으로(Lyubomirsky, Tkach, & Dimmatteo, 2006), 용어의 추상성으로 인해 명확하게 개념화하기 어렵고,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 되고 있다(정계숙 외, 2012).

고대로부터 시작된 행복에 대한 사유는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는 행복을 삶 속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정의하면서, 삶을 즐기고 삶의 방식에 만족하는 것, 나쁜 것보다는 좋거나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Diener 등(2010)은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면서도 단기적, 육체적, 물질적인 즐거움의 범위를 확장하여 행복을 폭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며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행복이라는 경험에 내포된 주관성을 강조하였고, 이 경험의 핵심 요소로 인지적 삶의 만족감, 빈번한 긍정적 정서, 낮은 빈도의 부정적 정서를 꼽았다(서은국 외, 2010). 한편 자기실현적 관점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성에 대한 충족과 발휘를 행복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삶이란 진정한 자기에 부합하게 사는 삶이며, 행복은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행복의 요소로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 긍정적 관계, 성취를 제시하면서 행복에는 더 깊은 개인적 발전성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이 포함됨을 강조한 Seligman(2011)이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요소로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발전을 제시한 Ryff와 Singer(2008)는 행복을 이러한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한편 욕구이론가들은 행복을 욕구의 충족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는데, 사람들은 욕구의 충족 여부나 충족 정도에 따라 행복감 또는 불행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욕구가 삶의 주요한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Maslow(1968, Griggs, 2007에서 재인용)는 인간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단계적 욕구를 가지며,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은 낮은 단계의 욕구일수록 더 긴급하고, 이것이 충분히 만족되어야 더 높은 단계에 위치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려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Alderfer(1972, 송계충, 정범구, 2003에서 재인용)는 생존(Existence)욕구, 관계(Relateness)욕구, 성장(Growth)욕구로

구성된 수정한 욕구위계이론을 제시하면서 고등한 욕구로 진전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낮은 욕구로 퇴행하는 과정도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일정한 시점에서 세 욕구들의 강도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한덕웅, 2006). 이와 관련하여 김명소와 한영석(2006)은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모두 한국인의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욕구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발달지체유아의 행복에 관한 인식을 살핀 박재국 외(2012)의 연구에서도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가 함께 공존함이 발견되었으며, 행복감의 수준이 성장영역에서 더 잘 변별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욕구에 근거하여 행복을 연구하는 접근이 타당한 것이며, 여러 위계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E·R·G 이론이 행복을 설명하는 근거로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Alderfer의 이론은 생존, 관계, 성장욕구로 구성되어, 행복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인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행복을 주제로 이루어진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 및 조건을 찾아내었으며(김명소 외, 2003; 김명소, 한영석, 2006;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이은혜, 최은영, 공마리아, 2012; 정계숙 외, 2013b; 현경자, 2004; Ryff & Singer, 2008), 특정 대상들의 행복감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거나(강영하, 2008;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박재국 외, 2012; 조성연 외, 2009b; Karasawa et al., 2011),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김도란, 김정원, 2008; 김명소 외, 2003;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박영신, 김의철, 2009; 정계숙 외, 2012; Holder & Coleman, 2008). 또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및 내적 특성을 규명하거나(국승희, 2001; 김청송, 2009;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박영신, 김의철, 2009; 장휘숙, 2010; Holder & Coleman, 2008), 역으로 행복감이 심리 성격적 특성에 주는 영향을 밝히기도 하였으며(김민정, 김정원, 2010),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도 하였다(이은혜, 최은영, 2012; 임승현, 남인수, 2008; Davis et al., 2004). 관련 선행연구들은 행복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주었다.

또한 선행된 연구를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및 행복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소득, 국가 및 거주 지역,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김명소 외, 2003;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Holder & Coleman, 2008; Karasawa et al., 2011), 개인의 경험이나 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김명소 외, 2003;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정대영, 최정아, 2010; O'Rourke & Cooper, 2010), 사람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영향

을 받는다는 점이 밝혀졌다(Diener et al., 1999). 그러므로 공통된 사회문화적 특성 및 개인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인식 경향을 밝혀내어 이해의 기초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 논의를 제시하며,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복연구는 성인, 대학생, 청소년, 초등학생, 유아 등 공통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여 수행되기도 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김민정, 김정원, 2010;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박희경, 윤갑정, 2012; 이은혜, 최은영, 공마리아, 2012; 정계숙 외, 2012; 정계숙 외, 2013b; 정대영, 최정아, 2010; Dunst, Hamby, & Brookfield, 2007).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 간 관계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배우자와 자녀, 친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기대에 따른 역할을 해 나가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인적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국인들은 가족과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험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의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김명소, 한영석, 2006), 행복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어머니가 주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머니의 행복은 독립된 개체인 성인으로서 느끼는 행복 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적 의존성과 역동을 고려해야 한다(정계숙 외, 2013b). 특히 자녀는 어머니의 행복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자녀의 특성 및 자녀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김명소 외, 2003; 박희경, 윤갑정, 2012; Dunst, Hamby, & Brookfield, 2007), 어머니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다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도란, 김정원, 2008; 김민정, 김정원, 2010; O'Rourke & Cooper, 2010).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며, 이는 부모의 역할에 부담을 가중시켜 부모와 자녀의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박재국, 허정옥, 2005).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고(김인옥, 이원령, 2011), 일반아동 어머니들보다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대영, 최정아, 2010). 또한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Walsh, 1986),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을 낮게 인식하고(전혜인, 2006; 정대영, 최정아, 2010), 비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 보다 행복감이 낮은 점이 제기되고 있다(정계숙 외, 2013a). Dunst, Hamby와 Brookfield(2007)는 자녀의 장애여부 및 장애정도가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다 하였고, 박재국 등(2012)도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밝혀 자녀의 장애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아동 어머니의 정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에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김인옥, 이원령, 2011; 임성옥, 박민정, 2006; 양숙미, 2001; 황경열, 고일영, 용홍출, 2010). 그러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각각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기에(Diener & Emmons, 1984; Seligman, 2011),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즉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논의의 초점을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옮겨 이를 복돋울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 어머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행복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어, 이에 기반한 실천적 논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부모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게 이루어졌으며, 유아기 부모 대상연구나 일반아동 부모와의 비교연구에 제한된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어머니의 행복감 정도를 살펴보고, 중요도와의 차이를 알아 보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1)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감은 어떠한가?

2)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요소별 중요도 인식과 행복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B시의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100명,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50명과 고등학생 50명 총 300명의 가정에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222부가 회수되어 74.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이 많은 12부를 제외한 210명의 응답을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210)

변인	범주	n	%	변인	범주	n	%
어머니 연령	만 39세 이하	98	46.7	자녀 성	남	138	65.7
	만 40세 - 만 49세	58	27.6		여	72	34.3
	만 50세 이상	49	23.3	자녀 장애 유형	지적장애	95	45.2
	무응답	5	2.4		자폐성장애	41	19.5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08	51.4		지체장애	32	15.2
	대졸 이상	97	46.2		의사소통장애	13	6.2
직업 유무	무응답	5	2.4	발달지체	13	6.2	
	직업 있음	71	33.8	청각장애	3	6.2	
	직업 없음	133	63.3	무응답	13	6.2	
자녀 연령	무응답	6	2.9	자녀 장애 등급	1급	107	51.0
	만 7세 미만	89	42.4		2급	53	25.2
	만 7세 이상 - 만 14세 미만	58	27.6		3급 이하	47	22.4
	만 14세 이상	60	28.6		무응답	3	1.4
	무응답	3	1.4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부모의 행복에 대한 인식 설문지’이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김명소 외, 2003; 문용린, 2011; 신지연,

2007; 이정화, 2004; Argyle, 2005; Diener et al., 2010; Ryff & Singer, 2008; Seligman, 2011)를 참고하여 18개의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Alderfer(1972)의 욕구이론에 따라, 생존(existence), 관계(relatedness) 및 성장(growth)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또 각 요인별로 3가지씩의 하위문항을 포함시키되, 부모의 행복에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명소, 한영석, 2006)를 반영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과 자녀 관계’ 요인만은 5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5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출된 요소들을 기초로 각 행복요소들이 부모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 56개와 실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평정하도록 하는 문항 56개로 구성된 112문항의 질문지를 마련하였다. 문항은 부모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진술하였고,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되, 가치판단 없이 중립적 의견에 주로 응답하는 경향을 피하고자 6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아동학, 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 4명,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 1명, 박사과정 수료자 4명이 연구목적의 적절성, 내용의 일관성, 각 요인 내 문항 간 상호배타성, 용어사용의 적절성, 응답 방식의 적절성, 문항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대한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행복감에 대한 질문에 먼저 응답하고,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체제를 수정하였다.

본 설문지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전체 문항에서 .98(56문항)이며, 생존 영역 .92(12문항), 관계 영역 .95(17문항), 성장영역 .96(24문항)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도구의 구성 시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한 행복의 영역 및 요소는 <표 2>, 설문지의 내용 구성 및 문항 수는 <표 3>과 같다.

<표 2>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행복의 요소

연구자	행복의 요소
김명소 외 (2003)	경제력, 사회·정치·문화·환경, 외모, 건강,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과 신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수용감, 자기 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여가, 긍정적 인생관, 사회봉사, 종교
문용린 (2011)	긍정적 마인드, 몰입, 만족지연능력, 자기결정력, 도덕지능
신지연 (2007)	경제적 요인, 건강, 자기만족·수용·가치관 성격, 능력·자기개발·목표추구, 직업목표·진로·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심·외모·신체조건, 자율성·독립성·자립성·자유·개성, 휴가·여가·취미, 종교, 가족관계, 이성 친구, 친구·대인관계, 기타

<표 2>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행복의 요소 (계속)

연구자	행복의 요소
Argyle (2005)	기쁨·긍정적 감정, 만족감, 유머·웃음, 사회적 관계, 직업·직무 만족, 여가 생활, 돈·사회계층·교육, 성격·나이·성, 종교활동
Diener et al., (2010)	목적과 의미, 지지적 관계, 참여, 사회에 대한 기여, 효능감, 자존감, 낙관성, 사회적 인정
Ryff & Singer (2008)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발전
Seligman (2011)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 긍정적 관계, 성취

<표 3> 설문지의 내용 구성 및 문항 수

영역	행복요소 (문항 수)
생존	경제력(3), 사회·문화환경(3), 건강(3), 외모(3)
관계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5), 부모친지관계(3),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3), 대인관계(3), 사회적 지위와 인정(3)
성장	성취 및 자기수용(3), 여가(3), 자기 개발 및 목표추구(3), 자립성(3), 종교(3), 이타심(3), 긍정적 인생관(3), 몰입(3), 긍정적 정서(3)
3 영역	18 요소 (56 문항)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분석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의 행복감과 행복요소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행복감과 행복요소 중요도 인식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주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들의 행복감 수준을 분석하고, 어머니들의 행복요소별 행복감이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 1)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감

장애아동 어머니들 자신이 행복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지를 평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살펴보았다. 어머니들의 행복감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감 (N=210)

영역	요소	항 목	M	SD
경제력		자녀가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3.63	1.10
		생활의 여유가 느껴지는 것	3.28	1.08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3.23	1.10
요소			3.38	1.04
사회 문화적 환경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환경	3.55	1.18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	3.45	1.15
		풍부한 교육, 문화 환경	3.24	1.17
요소			3.41	1.07
생존	외모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	3.47	1.14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3.50	1.12
		표준 체중 유지	3.59	1.24
요소			3.52	1.01
건강		자기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	3.62	1.16
		큰 질병 없이 사는 것	4.30	1.26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	4.29	1.27
요소			4.07	1.12
영역			3.60	.84

<표 4>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감 (계속)

(N=210)

영역	요소	항 목	M	SD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 관계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	4.37	1.22
		자녀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	4.38	1.08
		자녀들 간에 우애가 돈독한 것	4.23	1.28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한 것	4.48	1.12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	4.37	1.13
	요소		4.36	.99
부모 친지 관계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4.53	1.08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4.14	1.21
		부모님께 좋은 자식으로 인정받는 것	4.14	1.18
	요소		4.26	1.04
배우자와의 관계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4.15	1.29
	사랑과 신뢰	성적으로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	3.83	1.31
		가정을 우선시하고 그에 충실한 것	4.53	1.17
	요소		4.17	1.13
대인 관계		다수의 마음이 통하는 친구나 이웃을 가지는 것	4.02	1.23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	3.81	1.26
		사람들과 자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3.80	1.24
	요소		3.88	1.18
사회적 지위와 인정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나 지위를 가지는 것	2.69	1.23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3.00	1.19
		높은 학력을 가지는 것	3.02	1.21
	요소		2.90	1.07
	영역		3.91	.89
성취 및 자기수용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는 것	3.29	1.15
		나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	3.53	1.12
		나의 삶의 행로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	3.48	1.16
		요소		3.43
성장 여가		개인적인 문화생활, 여행 등을 즐기는 것	3.00	1.30
		가족 단위의 문화생활, 여행 등을 즐기는 것	3.04	1.30
		자기 개발과 재충진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2.68	1.27
	요소		2.91	1.17

<표 4>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감 (계속) (N=210)

영역	요소	항 목	M	SD
자기개발과 목표추구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3.10	1.27
		자신의 삶의 상황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	3.46	1.26
		세상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	3.45	1.23
요소			3.34	1.12
자립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는 것	4.00	1.18
		어려운 환경에 문제에 스스로 대처하는 것	3.88	1.21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의사 결정하는 것	3.96	1.19
요소			3.94	1.09
종교		종교를 가지는 것	3.36	1.55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2.93	1.54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2.92	1.55
요소			3.07	1.47
성장	이타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2.71	1.39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	2.92	1.25
		타인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3.37	1.38
요소			3.00	1.19
긍정적 인생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	4.00	1.21
		어려운 환경에 자신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3.93	1.22
		자녀가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3.78	1.23
요소			3.90	1.09
몰입		시간가는 줄 모르는 일을 자주 하는 것	3.83	1.22
		흥미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일을 가지는 것	3.64	1.28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3.70	1.27
요소			3.72	1.15
긍정적 정서		좋은 기분을 자주 느끼는 것	3.94	1.18
		자녀가 가족과 함께 하며 느끼는 행복	4.27	1.15
		자기 일상에 만족하는 것	3.80	1.26
요소			4.00	1.10
영역			3.48	.88
전 체			3.68	.83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 문항전체 평균 3.68, 표준편차 .83으로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영역별 행복감 평균은 생존영역 3.60(SD=.84), 관계영역 3.91(SD=.89), 성장영역 3.48(SD=.88)로, 관계영역에서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성장영역에서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행복요소 가운데에서는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 (M=4.36, SD=.99), '부모 친지 관계' (M=4.26, SD=1.04),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M=4.17, SD=1.13), '건강' (M=4.07, SD=1.12), '긍정적 정서' (M=4.00, SD=1.10) 요소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높은 행복감이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위와 인정' (M=2.90, SD=1.07), '여가' (M=2.91, SD=1.17), '이타심' (M=3.00, SD=1.19) 요소에서의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존영역의 행복요소 평균은 건강 (M=4.07, SD=1.12), 외모(M=3.52, SD=1.01), 사회문화적 환경(M=3.41, SD=1.07), 경제력(M=3.38, SD=1.04) 순으로 나타났다. 생존영역의 12가지 하위문항들의 응답평균 범위는 3.23에서 4.30으로 산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큰 질병 없이 사는 것(M=4.30, SD=1.26)',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M=4.29, SD=1.27)' 요소에서 응답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M=3.23, SD=1.10)', '풍부한 교육, 문화 환경(M=3.24, SD=1.17)', '생활의 여유가 느껴지는 것(M=3.28, SD=1.08)'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응답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계영역 행복요소 행복감 평정평균은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 관계 (M=4.36, SD=.99), 부모친지관계(M=4.26, SD=1.04),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M=4.17, SD=1.13), 대인관계(M=3.88, SD=1.18), 사회적 지위와 인정(M=2.90, SD=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영역의 17가지 하위문항들의 응답평균 범위는 2.69에서 4.53에 분포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정을 우선시하고 그에 충실한 것(M=4.53, SD=1.17)',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M=4.53, SD=1.08)',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한 것(M=4.48, SD=1.12)' 등의 문항에서 행복감 평균이 높았다. 하지만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나 지위를 가지는 것(M=2.66, SD=1.23)',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M=3.00, SD=1.1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수가 산출되었다.

성장영역 행복요소에 가운데에는 긍정적 정서(M=4.00, SD=1.10), 자립성(M=3.94, SD=1.09), 긍정적 인생관(M=3.90, SD=1.09)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반면 낮은 평균이 산출된 요소는 여가(M=2.91, SD=1.17), 이타심(M=3.00, SD=1.19), 종교(M=3.07, SD=1.47) 등이었다. 성장영역의 27가지 하위문항들의 응답평균 범위는 2.68에서 4.27이었는데, 그 가운데 응답평균이 높은 문항은 '자녀가 가족과 함께 하며 느끼는 행복(M=4.27, SD=1.15)',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는 것(M=4.00, SD=1.18)',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M=4.00, SD=1.21)'

이었다. 하지만 ‘자기 개발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M=2.68, SD=1.27)’,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M=2.71, SD=1.39)’,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M=2.92, SD=1.55)’,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M=2.92, SD=1.25)’,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M=2.93, SD=1.54)’ 문항에서는 평균 3점 미만의 낮은 평균을 보였다.

2)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 간 차이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초점을 두어야 할 행복요소를 찾기 위하여, 행복요소별 중요도와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두 점수 간 평균차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요소별 중요도와 행복감 간 비교 (N=210)

요소	중요도		행복감		평균차 (MD)	t
	M	SD	M	SD		
경제력	4.34	1.21	3.38	1.04	.96	10.01***
사회·문화 환경	4.66	1.12	3.41	1.07	1.25	12.80***
외모	4.11	.89	3.52	1.01	.59	7.97***
건강	4.91	1.00	4.07	1.12	.84	9.85***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	5.06	.98	4.36	.99	.70	9.11***
부모친지관계	4.83	.98	4.26	1.04	.57	6.87***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4.81	1.01	4.17	1.13	.64	7.24***
대인관계	4.43	1.00	3.88	1.18	.55	6.16***
사회적 지위와 인정	3.70	1.04	2.90	1.07	.80	9.38***
성취 및 자기수용	4.23	1.16	3.43	1.07	.80	9.00***
여가	4.21	1.24	2.91	1.17	1.30	12.53***
자기 개발 및 목표 추구	4.31	1.06	3.34	1.12	.97	10.91***
자립성	4.56	1.00	3.94	1.09	.62	7.67***
종교	3.54	1.42	3.07	1.47	.47	5.53***
이타심	4.02	1.07	3.00	1.19	1.02	11.71***
긍정적 인생관	4.70	1.00	3.90	1.09	.80	9.37***
몰입	4.52	1.04	3.72	1.15	.80	8.85***
긍정적 정서	4.85	1.05	4.00	1.10	.85	9.56***

\*\*\*p<.001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18개 모든 요소에서 중요도 인식이 행복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어머니들이 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행복의 요소는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 ( $M=5.06, SD=.98$ ), ‘건강’ ( $M=4.91, SD=1.00$ ), ‘긍정적 정서’ ( $M=4.85, SD=1.05$ )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행복요소의 중요도와 행복감 간의 평균차이가 큰 요소는 ‘여가’ ( $MD=1.30, t=12.53$ ), ‘사회·문화환경’ ( $MD=1.25, t=12.80$ ), ‘이타심’ ( $MD=1.02, t=11.71$ ), ‘자기 개발 및 목표추구’ ( $MD=.97, t=10.91$ ), ‘경제력’ ( $MD=.96, t=10.01$ )이었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유무와 자녀의 연령, 성,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독립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중 명목척도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유무, 자녀의 성과 장애유형을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고, 자녀의 장애유형 변인은 사례수가 30명 이상인 장애유형인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응답결과만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변인에서 무응답은 제외하고 통계처리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해 본 결과 VIF가 1에 근접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기에,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이에 대한 설명은 <표 6>,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 인		변 수 설 명
어머니 변인	연 령	만 39세 이하, 만 40세~만 49세, 만 50세 이상
	학 령	더미 변수, 고졸 이하=0, 대졸 이상=1
	직업 유무	더미 변수, 직업 없음=0, 직업 있음=1
자녀 변인	연 령	만 7세 미만, 만 7세 ~만 14세 미만, 만 15세 이상
	성	더미 변수, 여아=0, 남아=1
	장애유형(정신지체)	더미 변수, 정신지체=1, 지체장애=0, 자폐성 장애=0
	장애유형(지체장애)	더미 변수, 정신지체=0, 지체장애=1, 자폐성 장애=0
	장애등급	1급, 2급, 3급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210)

독립 변인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R <sup>2</sup>	F
	어머니 연령	학력 (대졸)	직업유무 (직업 있음)	자녀 연 령	성 (남아)	장애유형 (정신 지체)	장애유형 (지체 장애)	장애 등급		
①	-.06	.13	.07	-.13	-.01	.09	.02	.05	.067	1.69
②	.01	.16*	.08	.08	.02	-.03	.05	.14	.053	1.33
③	.02	.08	.09	-.07	.07	.02	-.14	-.12	.052	1.30
④	-.01	-.03	.14	.06	-.05	-.02	.01	.03	.029	.70
⑤	-.02	.09	.08	.06	.02	.02	-.03	.03	.020	.49
⑥	-.02	.06	.07	-.01	.04	.04	-.03	.01	.013	.32
⑦	-.09	.17*	.03	.03	.03	.00	-.01	-.03	.038	.95
⑧	-.05	.09	.10	.06	-.02	-.06	-.13	.09	.044	1.09
⑨	.00	.28***	.17*	.04	-.01	-.04	-.13	.04	.130	3.54***
⑩	.03	.18*	.13	-.14	-.04	-.03	-.03	-.01	.074	1.89
⑪	-.09	.11	.08	-.09	.01	.04	-.07	.06	.058	1.47
⑫	-.02	.19**	.16*	.01	.02	-.11	-.16*	.10	.100	2.62**
⑬	-.09	.14	.09	.08	.01	-.02	-.12	-.11	.054	1.34
⑭	.04	.06	-.03	.04	.04	-.01	-.07	-.04	.015	.37
⑮	.00	.05	.17*	-.02	.01	-.01	-.09	.01	.038	.94
⑯	-.03	.03	.18*	-.03	.03	-.04	-.10	-.03	.041	1.02
⑰	-.10	-.05	.16*	.07	.03	-.07	-.07	.11	.051	1.27
⑱	-.06	.03	.09	-.02	.01	.00	-.04	.02	.016	.40

\*p<.05, \*\*p<.01, \*\*\*p<.001

①경제력, ②사회·문화환경, ③외모, ④건강, ⑤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 ⑥부모친지관계, ⑦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⑧대인관계, ⑨사회적 지위와 인정, ⑩성취 및 자기수용, ⑪여가, ⑫자기 개발 및 목표추구, ⑬자립성, ⑭종교, ⑮이타심, ⑯긍정적 인생관, ⑰몰입, ⑱긍정적 정서

장애아동의 어머니와 그 자녀의 변인들이 행복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행복 요소별로 살펴보면, ‘사회·문화 환경’ 요소( $\beta=.16, p<.05$ )와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요소( $\beta=.17, p<.05$ ), ‘성취 및 자기수용’ 요소( $\beta=.18, p<.05$ )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사회적 지위와 인정’ 요소에서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13.0%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F=3.54, p<.001$ ), 어머니의 학력

과 직업 유무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요소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의 행복감 수준이 더 높았고( $\beta=.28, p<.001$ ),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 $\beta=.17, p<.05$ )의 행복감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요소에서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10.0%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F=2.62, p<.01$ ), 이 요소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들( $\beta=.19, p<.01$ )과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 $\beta=.16, p<.05$ )의 행복감이 더 높고, 지체장애 자녀의 어머니들( $\beta=-.16, p<.05$ )의 행복감은 정신지체 또는 자폐성장애 자녀의 어머니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타심’ 요소( $\beta=.17, p<.05$ ), ‘긍정적 인생관’ 요소( $\beta=.18, p<.05$ ), ‘몰입’ 요소( $\beta=.16, p<.05$ )에서도 직업을 가지는 어머니들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 성, 장애등급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감은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행복 요소 중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 ‘부모 친지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건강’, ‘긍정적 정서’ 요소에서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행복감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행복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좋고 나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느끼는 역동적인 과정으로(Gilligan & Huebner, 2002),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삶의 모습임(문용린, 2011)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그들의 삶에 난관을 겪지만, 이는 자신의 내적 힘을 깨닫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Schwartz & Gidron, 2002), 이들을 부정적 정서를 가진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긍정적 정서를 가진 대상으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였지만, 그 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어머니들이 낮은 행복감을 보인 ‘사회적 지위와 인정’, ‘여가’, ‘이타심’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들 요소

에서의 낮은 행복감은 장애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 받는다고 느끼기에 제한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며, 자기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박성현, 차명정과 함경애(2012), 이은혜와 최은영(2012)은 장애아동 부모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감소, 정서조절 능력 향상, 양육효능감의 증진, 부모 자녀 간 관계 개선, 삶의 의미 증진에 주는 효과를 밝히면서,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과 사회적 지지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이은혜, 최은영, 공마리아, 2012)을 감안하여, 어머니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어머니들 간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가지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방법과 형태가 다양한 부모교육의 마련으로 어머니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들의 행복감은 관계영역, 생존영역, 성장영역의 순으로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에게는 고등한 욕구로 진전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낮은 욕구로 퇴행하는 과정도 있으며, 일정한 시점에서 세 욕구들의 강도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수정한 Alderfer의 주장(한덕웅, 2006)이 실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 부모친지, 배우자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형성에 관한 요소가 반영된 관계영역에서의 높은 행복감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경향이다. 구재선과 김의철(2006)은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행복 혹은 불행을 경험하는 영역이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험들이라 하였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행복감을 연구한 김명소와 한영석(2006), 발달지체유아의 행복감을 연구한 박재국 등(2012)도 관계영역에서 높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김명소와 한영석(2006)은 이를 가족관계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집합주의적인 문화의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머니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기한 다수의 연구들(김명소 외, 2003; 박희경, 윤갑정, 2012; Dunst, Hamby, & Brookfield, 2007)을 지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장애아동의 어머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적 관계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Ryff & Keyers, 1995), 장애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가족 간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특성이 투영되었기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셋째, 어머니들의 행복요소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행복의 요소들이 필요하고, 각각의 요소들은 나름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 ‘건강’, ‘긍정적 정서’를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또한 이는 부모가 행복을 위해 화목한 가정과 건강관리, 자기조절을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한다는 김의철, 박영신과 박선영(2012)의 연구 결과와도 상통한다.

넷째, 행복요소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실제 행복감보다 더 높게 나타나 바람과 현실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요도 인식과 행복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행복요소는 ‘여가’와 ‘사회·문화환경’, ‘이타심’, ‘자기 개발 및 목표추구’, ‘경제력’으로, 행복요소의 중요성에 비해 자신이 실제로 그 요소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낮았는데, 이는 어머니들 자신과 자녀의 성장을 위한 제반 요소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이 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괴리에 따라 결정되므로(Odaci, Kalkan, & Karasu, 2009),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들 요소에 대한 지원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행복요소 중요도와 행복감 간 가장 큰 평균차를 보인 요소인 ‘여가’와 여성의 행복감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장훈, 김우정, 허태균, 2012; 한학진, 강혜숙, 오평식, 2011). 주관적 행복과 참여 여가활동의 수, 여가시간 집중도간 관계를 증명한 장훈, 김우정과 허태균(2012)은 여가선택의 다양성 확보와 제반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여가 생활 참여 기회와 이를 위한 시간 확보,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어머니들의 학력은 ‘사회·문화 환경’의 생존영역 요소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사회적 지위와 인정’과 같은 관계영역 요소, ‘성취 및 자기수용’,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와 같은 성장영역 요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이들 요소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나타내어,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으며, 긍정적인 정서가 많고, 부정적 정서는 적다는 박희경과 윤갑정의 연구(2012)나, 학력이 높은 부모에게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도란과 김정원(2006)와 맥락을 같이하나, 학력이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문수경, 이무영과 박상희(2009), 정대영과 최정아(2010), 정계숙과 최은실(2012)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어머니의 직업 유무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사회적 지위와 인정’의 관계영역의 요소와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이타심’, ‘긍정적 인생관’, ‘몰입’의 성장영역의 요소에서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은 행복감을 나타내었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 고 여기고, 타인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냄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일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더 높이 인식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계숙 등(2013a)의 연구에서 직업유무는 장애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정대영과 최정아(2010)의 연구에서도 직업을 가진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나타내었으며, 한학진과 강혜숙, 오평석(2011)의 연구에서도 직장여성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삶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며(유경, 이주일, 2010), 자신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는 확신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개인적 성장을 위한 변화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명소 외, 2003).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향 설정에서 어머니들의 취업여부가 고려되어야 함이 제기되는 것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어머니들에게 자기 역할의 가치를 확인하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을 위해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일곱째, 자녀의 장애유형은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요소에서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이 증명되었는데, 지체장애 자녀의 어머니들의 행복감이 정신지체 또는 자폐성장애 자녀의 어머니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체장애 아동들은 타인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부담이 크기에(박재국 외, 2002), 어머니들이 자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체장애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자녀 양육 시 신체적 보조 제공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비 및 보장구, 특수용품의 구입 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양육 부담이 과중된다(허정임, 박재국, 2009; Heiman, 2002). 지체장애 자녀 양육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보조와 경제적 지원의 강화로, 어머니들이 자신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

성, 장애등급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연령은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변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문수경, 이무영과 박상희(2009), 박희경과 윤갑정(2012), 정계숙 등(2012), 김명소 등(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하였고, 서은국 등(2010)은 40대 여성들이, 유경과 이주일(2010)은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행복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여,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행복감 비교 결과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 이는 연구에 따라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와 연구 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연구는 일반아동 어머니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므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에 관한 추후 연구에서 그 영향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이었다. 하지만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는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로 인식하는 핵심 요소이다. 자녀의 생애주기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모-자녀관계, 가족들의 심리적 적응, 심리적 복지와 연관되며(조성연 외, 2009a), 부모의 양육 특성과 함께 부모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Luster & Okagaki, 1996)은 장애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논의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행복의 특성을 이해하고, 행복감 증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나, 그 정도는 심리적 요인이나 관계적 요인에 비해 상당히 적음(정계숙, 최은실, 2012;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박희경, 윤갑정, 2012; Diener, 1984; Diener et al., 1999)을 주지하여, 외적변인만으로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추측하거나 선입견을 갖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어머니들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결과의 일반화에서 한계를 가지며,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행복감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과 어머니집단 특유의 응답경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지역의 연구 대상을 포함한 연구를 연구, 아버지의 행복감 연구를 결과를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들의 심리내적인 요소나 관계적 요소를 탐색하는 것에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였다. 자아존중감, 우울, 자녀와의 관계, 결혼 만족도 등의 요소와 행복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더 많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하 (2008).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상담연구**, 11(2), 219-235.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국승희 (2001).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질 모델 개발.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도란, 김정원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민정, 김정원 (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아동행정연구**, 14(2), 7-28.
-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9(2), 197-225.
- 김인옥, 이원령 (2011).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 장애연구**, 27(1), 101-121.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4(4), 137-153.
- 문용린 (2011). **행복한 성장의 조건**. 서울: 리더스북.
- 박성현, 차명정, 함경애 (2012). '행복한 어머니 되기' 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9(3), 487-506.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95-132.
- 박재국, 서보순, 최은실, 박희경 (2012). 발달지체유아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유아특수 교육연구**, 12(2), 79-107.
- 박재국, 전현선, 오세철, 한경임, 노선옥 (2002). **중복·지체부자유아 치료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박재국, 허정옥 (2005). 지체부자유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5, 259-280.
- 박희경, 윤갑정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243-261.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지수: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3-232.
- 송계충, 정범구 (2003). **조직행위론**. 서울: 경문사.

22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2호)

- 신지연 (2007). 대학생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유 경, 이주일 (2010).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 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89-104.
- 이은혜, 최은영, 공마리아 (2012).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19(2), 249-275.
- 이은혜, 최은영 (2012).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연구. **미술치료연구**, 19(4), 609-836.
- 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임성옥, 박민정 (2006). Q-방법론을 이용한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203-226.
- 임승현, 남인수 (2008).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경험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1), 527-536.
- 양숙미 (2001).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부모의 상호지지 변화과정: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8(1), 59-88.
- 장훈, 김우정, 허태균 (2012). 여가참여 다양성과 행복의 관계. **여가학연구**, 9(3), 21-38.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17.
- 전혜인 (2006). 부모결연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가족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계숙, 유미숙, 박수홍, 최은실 (2012). 자녀 생애주기별 어머니의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 경향. **아동학회지**, 33(4), 67-87.
- 정계숙, 최은실 (2012).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43-163.
- 정계숙, 박재국, 최은실, 서보순, 박희경 (2013a). 장애 유아·비장애 유아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연구**, 33(1), 153-174.
- 정계숙, 박재국, 박수홍, 유미숙, 최은실, 서보순 (2013b).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27-43.
- 정대영, 최정아 (2010).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비교. **정서·행동장애 연구**, 26(3), 319-343.
- 조성연, 백경숙, 옥경희, 전효정, 전연진 (2009a). **가족관계**. 서울: 양서원.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b).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한덕웅 (2006). **인간의 동기심리**. 서울: 박영사.
- 한학진, 강혜숙, 오평석 (2011). 직장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동기 요인과 여가활동특성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6(5), 495-513.
- 허정임, 박재국 (2009). 지체장애 부모의 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조사. **중복·지체부자유아 연구**, 52(3), 231-249.
- 현경자 (2004).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중단적 탐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60-100.

- 황경열, 고일영, 용홍출 (2010). 장애아동 어머니의 개인특성, 장애수용 태도, 양육 스트레스가 장애아동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3(2), 1-22.
- Argyle, M. (2005). *행복심리학*(김동기, 김은미 역). 서울: 학지사(원출판년도 2002).
- Baumgardner, S. R., & Crothers, M. K. (2009). *긍정심리학*(안신호, 이진환, 신현정, 홍창희, 정영숙, 이재식, 서수균, 김비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출판년도 2009).
- Davis, P. K., Young A., Cherry, H., Dahman, D., & Rehfeldt, R. A. (2004). Increasing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with profound multiple disabilities: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37, 531-534.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 Biswas-Diener, R.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143-156.
- Dunst, C. J., Hamby, D. W., & Brookfield, J. (2007). Modeli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variables on parent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Quantitative Methods*, 2(3), 268-288.
- Gilligan, T. D., & Huebner, E. S.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49-1155.
- Griggs, R. A. (2007). *심리학과의 만남* (신성만, 박권생, 박승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출판년도 2006).
- Hastings, R. P., Kovshoff, W., Espinosa, B., & Remington, B. (2005). Systems analysis of stress and positive perceptions in mothers and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5(5), 635-644.
- Holder, M., & Coleman, B. (2008). The contribution of temperament, popularity, and physical appearance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2), 279-302.
- Karasawa, M., Curhan, K. B., Markus, H. R., Kitayama, S. S., Love, G. D., Radler, B. T., & Ryff, C. D. (2011). Cultural Perspectives on Aging and Well-Being: A Comparison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73(1), 73-98.
- Lyubomirsky, S., Tkach, M., & Dimmatteo, M. R. (2006).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3), 363-404.
- Odaci, H., Kalkan, M., & Karasu P. (2009). A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of the mainstreamed elementary students: Cognitive error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3), 57-62.

- O'Rourke, J., & Cooper, M. (2010). Lucky to be happy: A study of happiness in Australian primary student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al & Developmental Psychology, 10*, 94-107.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Ryff, C. D., & Singer, B. H. (2008). Know thyself and become what you are: A eudaimon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3-39.
- Schwartz, C., & Gidron, R. (2002). Parents of mentally ill adult children living at home: rewards of caregiving. *Health Social Work, 27*(2), 145-154.
- Seligman, M.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Y: Free Press.
- Walsh, F. (198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 Maternal Perceptions on Happiness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k, Jaek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 Kais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 Boso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Eunla**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ceive their own happiness level, to offer information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explore ways to support them. To this ends,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requir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3 domains;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Then data were us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happiness and to compare the happiness level according to mothers' personal backgroun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perception of happiness was more or less positive and, in particular, showed the highest level in relatedness domain. Also mothers perceived their present happiness level lower than the importance level of happiness.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ollowing variables: mother's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classification of their children's disabilities.

**Key Words** :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aternal happiness, factors of happiness

---

논문 접수: 2013. 05. 05 심사 시작: 2013. 05. 12 게재 확정: 2013. 06. 23